

민주당 광주·전남선대위, 투표율 90% 달성 총력전

직능단체 지지선언 등 동분서주
담양 재선거 예비주사 전력투구
DJ 전 대통령 94.4% 경신 촉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90% 달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담양 재선거 패배로 텃밭 민심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은 선거조직을 총가동해 골목골목까지 행하는 한편 직능단체 지지선언, 정책 협약 등을 통한 민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21일 민주당 광주선대위에 따르면 대선 공식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60개 단체, 1만8,140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오는 28일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518명, 의사회, 약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청년대학생 2025명, 민주택시노동조합, 장애인 권익협회, 양동시장상인회, 반려동물산업발전협회 등 30여개 단체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각계 각층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단체는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농업인단체연합회, 전북산업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의사회, 한의사회, 교수·문화예술인 1,740명, 순천대·목포대·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전남지역 주요 대학 교수 312명 등 총 50개에 이른다.

외부 조직과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협약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지난 16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시작으로 22일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 28일 광주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과 정책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 선대위가 직능본부를 꾸리고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지지선언 등 외부 조직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은 텃밭 호남의 민심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계 정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왔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제13대 대선에서 김대중(평화민주당) 후보는 광주 94.4%, 전남 90.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하며 광주·전남 민심 이반을 감지했다.

이에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는 지역 투표율 90% 이상, 이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보다 약 5%p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넓혀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병해충 방제 효능 뛰어난 ‘김 활성처리제’ 개발

전남도, 3년만 국내의 특허
김영록 “전략산업 클러스터”

전남도가 3년간의 노력 끝에 기존 김 활성처리제보다 파래와 요각류, 카드뮴 등 병해충과 중금속 제거능력이 탁월한 김 활성처리제 개발에 성공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개발된 김 활성처리제의 양식 효능시험 결과 파래는 100% 구제하고 요각류는 140% 제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각류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 갑각류, 동물플랑크톤의 주요 구성원이다.

시험 결과 파래의 경우 10초만에 제거해 30~40초 소요되는 기존 활성처리제에 비해 효과가 3~4배에 이르고, 요각류 제거는 무기산(염산)의 1.4배, 기존 활성제보다 3배 가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인 카드뮴 제거능력은 kg당 0.18mg으로 기존 활성제보다 10배나 큰 효과가 있었다. 군 재발 억제력도 6일로 기존 활성제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도 뛰어나 연간 사용량은 1.5t으로 무기산의 2배, 기존 활성제보다 8배나 덜 사용하고도 효과가 탁월했고 비용은 88% 감소, 침지 시간은 3배 가

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용역은 어업인들의 기존활성제 사용 기피와 불법 무기산 사용으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단속에 적발돼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도, 수협중앙회, 지역수협(고흥·해남·진도·신안)이 힘을 모아 서울대에 의뢰해 추진한 연구용역이다.

신규 활성처리제는 국내의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2025년 산 김 생산 시기 대규모 현장 시험(4개 시·군, 1,100ha)으로 130명이 직접 사용하고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특허, 올해 1월

에는 일본 특허를 각각 취득했다.

전남도는 병해충 방제, 중금속 제거, 작업시간 단축 등이 뛰어난 새로운 김 활성제를 개발한 뒤 양식 효능시험을 거쳐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관계기관과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업인들의 4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올해 김 양식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명품강소기업’ 모집

광주시는 21일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400여 개사가 선정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프리(Pre)-명품강소기업(13개사), 명품강소기업(18개사)으로 구분한다.

선정 조건은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협업·자율 지원이 제공된다.

광주시 경영안정자금(3억원~5억원 상향) 등 금융·세제·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순천시 올해 첫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호응

8개 시군 115개 기업 참여
직업탐색·일자리체험 다채

올해 첫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job)을 찾는 기쁨, 함께 하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21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동부권 115개 기업이 참여해 205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민주당 권향엽 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혜숙 순천

YWCA 회장, 김현미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구인기업, 구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순천을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등 8개 시·군 115개 기업이 참여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설계와 지역 특색 일자리를 중점 소개하는 특화형으로 운영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 탐색, 목공·에너지·메이킹·반려동물 분야 등 특색 있는 일자리 체험이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박람회를 통해 많은 여성이 생애 어느 단계에 있는 다양한 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이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힘써 고용 기회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매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600여 구인업체를 발굴해 추진, 352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순천을 시작으로 6월 18일 여수 흥국체육관, 9월 2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까지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6월까지 찾아가는 ‘청렴정담회’

전남도는 21일 “오는 6월까지 도청 실국에서 ‘찾아가는 청렴정담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정담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분야와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교육이나 일방적 전달을 넘어 각 부서의 실정에 맞춘 정책 설계를 통해 청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담회는 △청렴도 평가제도 설명 및 2024년 평가 결과 분석 △2025년 청렴

시책 및 협조 사항 안내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실·국과 사업소 간부를 비롯해 감사관, 청렴 지원관 등이 함께 참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진다.

전남도는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